

<http://doi.org/10.5253/kpac.2025.52.1>

## 『東文選』所載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이희영\*\*

### 차 례

1. 서론
2. 前代 詩選集과의 關係
3.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
  - 1) 다양한 일상의 포착
  - 2) 作詩 素材와 表現에 대한 관심
  - 3) 求官 목적의 五言排律詩 수록
4. 결론

### | 국문초록 |

본고는 『東文選』所載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문선』에서의 이규보 한시에 대한 選詩는 『동인지문오칠』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외에 22제 26수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選詩 樣相은 우선, 다양한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를 選詩하였다. 여기에서는 忘年之交인 오세재와 지방 유생 및 조정에서 문인들 사이의 교류, 致仕 이후 元老로서 생활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으로는 作詩 素材와 表現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素材 측면에서 寢屏·畫簇의 그림을 바탕으로 지은 한시와 盆裁 및 매화와 같은 사물을 읊은 시가

\* 본 연구는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조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진흥 조교수

보인다. 표현에서는 逸氣와 新意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求官을 목적으로 하는 오언배울시를 選詩하였다. 이것은 무인 정권 시기 추천제에 의한 관리 선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언배울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選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규보 漢詩에 대한 選詩는 조선 시대 각종 詩選集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이규보 한시에 대한 지속적 인식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후대 詩選集의 選詩 樣相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핵심어** : 李奎報, 『東文選』, 『東人之文五七』, 詩選集, 排律詩, 選詩

## 1. 서론

본고는 『東文選』所載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보 한시에 대한 언급은 李需의 「東國李相國文集序」에, ‘詩文을 지을 때는, 대체로 古人의 틀에 박힌 관습을 따르지 않았고, 시를 빠르게 짓는 것으로 일컬어졌다.[爲詩文, 略不蹈古人畦徑, 以詩捷稱.]’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鄭芝의 「李奎報誄書」(『東文選』권116)와 『高麗史·列傳』은 「東國李相國文集序」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규보 시문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sup>1)</sup>

이규보 한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崔滋의 『補閑集』에서부터 보이며, 崔瀼의 『東人之文五七』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選詩 작업이 이뤄진다. 여기에서는 38제 50수를 수록하고 있으며,<sup>2)</sup> 略傳과 함께 좋은 시구에는 批點을 하였다. 趙云乞의 『三韓詩龜鑑』에서는 이규보 한시를 精選하여 수록하였다. 『동문선』

1) 鄭芝, 「李奎報誄書」, 『東文選』권116, “一覽輒記, 以詩捷稱, 牛童馬走, 無不知名也.”; 정인지 외, 『高麗史·列傳』권15, “爲詩文, 不蹈古人畦徑, 橫鶩別駕, 汪洋大肆.”

2) 『동인지문오칠』에 표제한 작품의 수는 38제 50수이지만, 실제로는 39제 51수이다. 「北山雜題」는 4수를 수록하고 있지만, 1·2수는 「山中寓居」3수(『동국이상국전집』12권)에서 1·3수에 해당한다. 『삼한시귀감』과 『동문선』은 『동인지문오칠』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은 『동인지문오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한집』에서 언급한 한시를 포함하여 60제 76수를 選詩하였다. 『동문선』에서 추가로 수록한 한시는 22제 26수이다.

이규보 한시의 選詩와 관련해서는 『동인지문오칠』 및 『삼한시귀감』을 언급하는 가운데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sup>3)</sup> 김대중은 『삼한시귀감』에서 수용한 최해의 비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이규보 한시를 選詩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박한남은 『동인지문오칠』과 관련한 전체적인 사항(비점 유형·수용 관계)을 언급하면서 이규보 한시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희영은 『동인지문오칠』 소재 이규보 한시의 選詩와 관련하여 ‘이규보 삶의 주요 국면별 정리·『보한집』 비평의 수용·독자로서의 공감과 치유’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한편으로 『동문선』의 選詩 樣相과 관련해서는 오언배율 및 칠언배율 選詩와 관련한 연구가 있으며,<sup>4)</sup> 여기에서는 오·칠언배율을 언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이규보 배율을 논의하였다. 『동문선』은 前代 詩文選集 및 文集을 참고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시문 출처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한 연구도 있다.<sup>5)</sup> 여기에서는 전대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집다운 독자성은 축소되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詩選集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명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작가에 대한 選詩와 관련한 관심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3) 김건곤, 『『三韓詩龜鑑』研究』, 『한국학』 9(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한영규, 「최해의 시문학과 선시의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김건곤, 「高麗時代의 詩文選集」, 『한국학』 20(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박한남, 「최해의 『동인지문오칠』 편찬과 사료적 가치」, 『史學研究』 67, 한국사학회, 2002.; 조동일 외 4인 공저, 『고려명현 최해연구』, 국학자료원, 2002.; 김대중, 「『삼한시귀감』 所載 崔澐의 평점비평 연구」,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이희영, 「『東人之文五七』 소재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82, 우리어문학회, 2025.
- 4) 이희영, 「『東文選』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8, 동양고전학회, 2022.; 이희영,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학회』 54,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 5) 여운필, 「『東文選』 시문의 출처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문선』 소재 이규보 한시의 選詩 樣相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문선』은 『동인지문오칠』에서 選詩한 한시를 제외하고 22제 26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동문선』에서 추가로 수록한 한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동문선』 撰者가 이규보 한시를 選詩한 樣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前代 詩選集과의 關係를 언급한 뒤, 選詩 樣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상의 포착·作詩 素材와 表現에 대한 관심·求官 목적의 五言排律詩 수록’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2. 前代 詩選集과의 關係

이규보 한시에 대한 인식은 崔滋의 『補閑集』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최자는 『보한집』에서, 이규보가 作詩하는 경향성과 學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편으로는 摘句批評을 통하여 風格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sup>6)</sup> 『보한집』에서는 63수에 해당하는 이규보 한시를 選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국이상국전집』에 수록하고 있지 않은 작품과 聯句를 확인할 수도 있다.<sup>7)</sup> 최자의 『보한집』은 이규보의 한시에 대한 비평적 인식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최해는 『東人之文五七』 詩選集에서 38제 50수의 이규보 한시를 選詩한다. 여기에서는 이규보에 대한 略傳을 포함하여 시체별로 한시를 구분하였으며, 또한 최해는 批點을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최해는 『보한집』에서

6) 作詩의 경향성은 『보한집』중권·(3:6:8:10:12:19:20)칙, 學詩의 과정은 『보한집』중권·46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한집』하권·5칙에서는 摘句批評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7) 『보한집』하권·45칙에는 陳華·遜得之·李允甫·李百順·尹于一·李奎報 6인이 부채를 두고 作詩하는 일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규보의 시는, “我欲洗煩熱, 潛投井裏天. 捉來雙手後, 搖入六官前. 已近高廚下, 堪陳漢仗前. 月圓奔底妾, 風弱馭無仙. 飛白書縈霧, 空青畫點烟. 驅蚊雷已靜, 撲蝶雪將顛. 發發供頭鶴, 輕輕弄鬢蟬. 蓬瀛手賦詠, 誰最號青錢”와 같은데, 이 작품은 『동국이상국전집』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언급한 8편의 작품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이규보 한시에 대한 選詩는 조운흥의 『삼한시귀감』과 『동문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동인지문오칠』 소재 이규보 한시의 수록 양상】

「오칠」 詩題	「동국」	「오칠」	「동문」	「귀감」	詩體	시(수)	비점	「보한」
秋送金先輩登第還鄉	1권	7권	9권	○(상)	오율	1		
適意	2권	7권	4권	○(상)	오고	1	○	
七夕雨	2권	7권	6권		칠고	1	○	
興王寺彭公房, 見李眉叟...	2권	7권	6권		칠고	1		
夏日	2권	8권	20권	○(중)	칠절	1	○	하(1칙)
春曉晝眠尹學錄韻	2권	8권	20권	○(중)	칠절	1	○	중(17칙)
延福亭	2권	8권	20권	○(중)	칠절	1	○	상(29칙)
發尙州	6권	7권	11권		칠배	1	○	
沙平江泛舟	6권	7권	9권	○(상)	오율	1	○	
下寧寺	6권	7권	9권	○(상)	오율	1	○	
犬灘	6권	7권	9권	○(상)	오율	1	○	
寓龍巖寺	6권	7권	9권	○(상)	오율	1	○	
江行	6권	7권	9권	○(상)	오율	1	○	
河豐江泛舟	6권	7권	14권		칠율	1		
聊城驛壁上韻	6권	7권	14권	○(중)	칠율	1	○	
漢江	6권	8권	20권	○(중)	칠절	1		
邊山路上	9권	8권	19권		칠절	1		
絶句杜韻	10권	8권	19권		칠절	1		
草堂端居, 和子美...	10권	7권	9권	○(상)	오율	5	○	
辛西五月, 端居無事...	10권	7권	14권	○(중)	칠율	5	○	하(3칙)
扶寧浦口	10권	8권	14권		칠율	1	○	중(33칙)
杜門	10권	8권	14권	○(중)	칠율	1	○	중(23칙)
鸚鵡	10권	8권	14권		칠율	1	○	

『오칠』 詩題	『동국』	『오칠』	『동문』	『귀감』	詩體	시(수)	비점	『보한』
讀林大年詩	10권	8권	20권		칠절	1		
列子御風	11권	8권	20권	○(중)	칠절	1		중(8칙)
子猷訪戴	11권	8권	20권	○(중)	칠절	1	○	중(8칙)
軍幕書情, 呈副使朴侍郎...	12권	8권	14권		칠율	1	○	
回安淳之詩卷	12권	8권	20권		칠절	1		
釣名諷	13권	7권	4권		오고	1	○	
聞琴次韻陳學正濼	13권	7권	9권	○(상)	오율	1	○	
守歲	13권	8권	20권		칠절	1		
九品寺	14권	7권	9권	○(상)	오율	1	○	
內省夜直	18권	8권	20권		칠절	1	○	
北山雜題	12권, 5권	8권	19권	○(상)	오절	4	○	중(33칙)
南中逢故人	후집1권	8권	20권	○(중)	칠절	1		
過奇相林園	후집1권	8권	20권	○(중)	칠절	2	○	
兒子涵編詩文書其後	후집1권	8권	20권		칠절	1		
卽事	후집10권	8권	19권		칠절	1	○	

『동인지문오칠』에서는 벼슬하기 이전의 이규보 한시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는 한시로 구성하였다. 『삼한시귀감』에서 이규보 한시는 22제를 수록하고 있다. 수록한 작품은 4편을 제외하고 최해의 비점이 있으며, 『동인지문오칠』에서 수록한 古詩와 排律詩는 제외하였다. 조운흠은 최해의 選詩에 대하여 精選한 작품을 수록했다고 할 수 있다. 『동문선』은 『동인지문오칠』에서 수록한 작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한편으로 『동문선』은 22제 26수를 추가로 選詩하여 수록하였으며, 이규보 한시의 選詩는 총 60제 76수가 된다. 추가로 수록한 한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동문선』에서 추가로 選詩한 이규보 한시 현황】

『동문선』 詩題	『동국』	시체	시(수)	『보한』
寄吳德全	1	칠언율시	1	상(44칙)

『동문선』 詩題	『동국』	시체	시(수)	『보한』
重遊北山	1	칠언율시	1	하(1칙)
梅花	1	칠언율시	1	
晩望	1	오언절구	1	
蓼花白鶯	2	오언고시	1	
遊家君別業西郊草堂	2	오언고시	2	
四時詞	3	칠언절구	4	
黃驪江泛舟	6	칠언율시	1	
宿峯城縣	7	칠언율시	1	하(5칙)
朴丞家盆竹	7	칠언절구	1	
上趙相詩	7	오언배율	1	
上右散騎	8	오언배율	1	
上直門下	8	오언배율	1	
上左諫議	8	오언배율	1	
上右諫議	8	오언배율	1	
上中書舍人	8	오언배율	1	
寓居天龍寺	9	칠언율시	1	
扶寧馬上記所見	10	오언배율	1	
右軍換鵝	11	칠언절구	1	중(8칙)
次賀琴平章得外孫	14	칠언배율	1	
春日訪山寺	14	칠언절구	1	
次韻	후집 8	칠언배율	1	

위 표는 選詩한 이규보 한시를 편년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동인지문오칠』처럼 이규보가 벼슬하기 이전의 작품에 대한 비중이 높고, 詩體는 배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한집』에서 언급한 작품도 4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의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

#### 1) 다양한 일상의 포착

『동문선』의 이규보 한시에 대한 選詩는 『동인지문오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인지문오칠』에서는 벼슬 생활 이전의 한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생의 주요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을 중심으로 選詩하였다.<sup>8)</sup> 주요 국면은 1196년 상주 유람, 1199년 전주 지방관 생활, 1202년 경주의 叛徒를 征伐하는 幕府從軍, 1207년 翰林院 權補와 30년간의 벼슬 생활, 1237년 致仕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문선』에서의 選詩는 3제 3수를 제외하고는 벼슬 생활 이전의 작품이며, 이러한 양상은 『동인지문오칠』의 選詩 樣相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동문선』은 求官 목적의 배울시를 제외하고, 이규보의 小小한 일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竹林高會 일원이었던 吳世才와 이규보의 社交를 보여준다.<sup>9)</sup>

<오덕전에게 시를 부치다>

海山東去路悠悠, 아득한 길 동쪽의 바다와 산으로 떠났고,  
一落天涯故倦遊. 한 번 하늘 끝에 떨어져 짐짓 노니느라 지쳤을 것이네.  
黃稻日肥鷄鶩喜, 누런 벼 날로 살찌니 닭과 오리 즐겁고,  
碧梧秋老鳳凰愁. 푸른 오동나무 가을 길어가니 봉황 근심하네.  
煙波不返遊吳掉, 안개 물결 吳湖에서 노닐며 배 돌리지 않고,  
雪月期浮訪剡舟. 눈 내린 달밤 섬 땅에 방문하는 배 띄우기 기약하네.  
聖代未應終見棄, 태평성대라서 끝내 버림받지 않을 것이네,

8) 이희영(『『東人之文五七』 소재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82, 우리어문학회, 2025.)의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9) 竹林高會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시는, 『동인지문오칠』에도 수록한 <興王寺, 彭公房見李眉叟內翰子, 年十二. 使之賦詩, 歎賞不已. 贈之>(『동문선』 권6)

莫辭垂白釣清流. 늙은 나이라도 맑은 물에 낚시질 멈추지 말길.<sup>10)</sup>

吳德全은 吳世才를 말하고, 德全은 그의 字이다. 이규보와 오세재는 忘年之交를 맺은 일화로 알려져 있다. 『보한집』상권·44칙에서는, “文順公(李奎報)은 吳世才보다 삼십여 세나 나이가 적지만, 吳와 忘年之交를 맺었다. 또한 문순공이 시를 지어 오세재에게 주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중략)…’ 라고 했으니 그를 한 시대의 영웅으로 칭찬하고 사모함이 이와 같았다.[文順公少於吳三十餘年, 結爲忘年交, 亦以詩寄之云, ‘…(中略)…’ 其爲一代英雄所稱慕, 如此.]”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늙어서 뜻을 얻지 못하여 東都(경주)로 떠났던 오세재를 기억하면서 시를 지었다. 이러한 일화의 기록은 당시에 사람들이 膾炙할 정도였다는 점과 이규보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재가 경주로 떠난 것은 조정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1)</sup> 두 사람의 상황은, 不遇라는 관점에서는, 나이 차이를 떠나서 동일했다. 이규보는 봉황[鳳凰]·대안도[訪剡舟]·범려[遊吳掉]로 오세재를 비유하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설정하여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강조한다. 尾聯에서 이규보는 지금의 시대를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오세재에게 求官을 멈추지 말라고 전한다. 여기에서는 이규보의 젊은 시절 문인들과의 관계 및 시대의 제약 속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규보가 언제나 求官을 멈추지 않고 세상에 뜻을 펼치고자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다음의 시에서는 일상을 통하여 젊은 시절 이규보가 지니고 있었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0) <寄吳德全>, 『동문선』 권14 ; <吳德全東遊不來, 以詩寄之[吳世才字德全]>, 『동국이상국전집』 권1, 『한국문집총간』 권1, 299쪽.

11) 『보한집』상권·44칙, “老不得志, 客遊東都”

<아버지의 별장인 서쪽 교외의 草堂에서 짓다> 2수

[1]

春風扇淑氣,	봄바람이 맑은 기운을 보내니,
朝日清且美.	아침 햇빛 깨끗하고 아름답네.
…(中略)…	…(중략)…
歲收畝千鍾,	해마다 밭에서 千鍾을 수확하니,
足可釀醇旨.	충분히 좋은 술 맛볼 수 있네.
何以度年華,	무엇으로 세월을 보내는가,
日日花前醉.	날마다 꽃 앞에서 취하네.
念此任抵手,	이것을 생각하며 손에 굳은살 박이도록,
意欲親耘耔.	직접 김매고 복돋우어 가꾸고 싶네.
…(中略)…	…(중략)…
月明返田廬,	달이 밝아서야 농삿집에 돌아오는데,
醉歌動隣里.	취하여 노래하니 이웃 마을이 들썩이네.
快哉農家樂,	기쁘구나! 農家の 즐거움,
歸田從此始.	농촌으로 돌아가는 일 이제부터 시작이네.

[2]

日高醉未起,	해가 높이 났는데 취하여 못 일어나고,
簷燕欺人飛.	처마의 제비 사람을 깔보며 날아가네.
童僕方巾車,	어린 종은 휘장 친 수레를 마련해 놓고는,
苦促南畝歸.	구태여 남쪽 밭으로 돌아가길 다그치네.
…(中略)…	…(중략)…
田婦白葛裙,	밭의 아낙은 흰 갈포 치마를 입었고,
田夫綠麻衣.	밭의 지아비는 푸른 삼베옷을 입었네.
相携唱田壟,	서로 손잡고 밭두둑에서 노래하고,
荷鋤如雲圍.	호미 메고 구름처럼 모여있네.
勉哉趁莠杏,	부지런히 농사의 때를 맞춰서,
耕穫且莫違.	경작과 수확을 또한 어기지 말라. <sup>12)</sup>

12) <遊家君別業西郊草堂>二首, 『동문선』 권4 ; <遊家君別業西郊草堂>二首, 『동국이상국전집』

이 시는 草堂이라는 공간에서 보는 田家의 생활을 바탕으로 지은 것이다. 이규보는 ‘날마다 꽃 앞에서 취하고[日日花前醉]’, ‘천종의 수확을 거두기[收畝千鍾]’ 위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 그는 농민들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것은 첫 번째 수에서 말한 ‘농가의 즐거움[農家樂]’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이규보가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농촌으로 돌아가[歸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을 통하여 이규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農民의 즐거운 모습과 자신의 넉넉한 일상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농민과 함께 하는 일상은 구성원으로서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규보는 與民樂하면서도 현실을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사대부로서 經世濟民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일 이제부터 시작이네[歸田從此始]’라는 말은, 관인으로서 삶을 마무리한 뒤에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한다.<sup>13)</sup>

다음의 시에서는 文士인 이규보를 예우하는 지방관리와 鄕校 儒生の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황려강에서 배를 띄우다>

桂棹蘭舟截碧澗, 계수나무 상앗대와 작은 배로 푸른 물결을 가르고,  
紅粧明媚水中天. 밝고 고운 기생들 물속 하늘에 어리었네.  
飢盤纔見團臍蟹, 가득한 쟁반에 배꼽 등근 게 겨우 보았고,  
掛網還看縮頸鱓. 걸린 그물에 목 짧은 방어 다시 보이네.  
十里煙花眞似畫, 십 리의 안개꽃 참으로 그림과 같고,  
一江風月不論錢. 한 줄기 강의 바람과 달 값을 매기기 어렵네.

권2, 『한국문집총간』 권1, 307쪽.

13) 이와 관련해서는 이희영(『이규보의 도연명 인식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51,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73쪽.)의 논의가 있다.

沙鷗熟聽漁歌響, 모래톱 갈매기 뱃노래 익숙하게 들었으니,  
飛渡灘前莫避船. 여울 앞을 날아가면서 배를 피하지 말라.<sup>14)</sup>

1196년 이규보는 개경의 患亂을 피하여 고향인 황령을 경유하고, 어머니가 계셨던 尙州로 향한다. 황령에서는 고을의 수령 및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進士 李大成, 고향 사람 몇몇과 노닐면서 作詩하기도 하였다.<sup>15)</sup> 위에 제시한 시는 『동국이상국전집』 권6의 題下注에, ‘향교의 여러 유생이 나를 위해 배를 마련하여 강에 띄웠다.[鄉校諸生, 爲予具船楫泛江]’라고 하여, 유생들이 열었던 연회임을 말한다. 이규보는 이날 연회의 즐거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시를 作詩하였다.

황령의 향교 여러 유생이 나를 위하여 배를 마련해 주었고, 달빛 비친 강에 배를 띄워 五更에 이르러 겨우 끝났다. 당시에 크게 취하여 長篇을 지어서 두터운 인정에 보답할 수 없었다. 다음날 상주로 가면서, 근곡촌에서 하루를 묵고 나오다가 여제 유람하면서 감상한 즐거움을 기록하여 몇몇 고향 사람에게 감사드리다. [黃驪鄉校諸生, 爲予具船楫, 乘月泛江, 至五更方罷. 時大醉, 不能作長篇以答厚意. 明日將向尙州, 出宿根谷村, 以記昨日遊賞之樂, 以謝鄉黨二三子云.](『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作詩의 배경인 뱃놀이는 五更까지 계속하였으며, 이규보는 정신없이 취하여 시를 짓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저녁 무렵 잠시 寺院에 배를 대었다가 밤에 다시 배를 띄워 놀았다고 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였다.<sup>16)</sup>

14) <黃驪江泛舟>, 『동문선』 권14; 泛小船[鄉校諸生, 爲予具船楫泛江], 『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15) 해당하는 시는 다음과 같다. <與鄉黨二三子, 遊馬巖>(『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李進士大成邀飲, 席上走筆贈之>(『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縣宰邀宴江樓, 明日奉贈>(『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16) <黃驪鄉校諸生, 爲予具船楫, 乘月泛江, 至五更方罷. 時大醉, 不能作長篇以答厚意. 明日將向尙州, 出宿根谷村, 以記昨日遊賞之樂, 以謝鄉黨二三子云>, 『동국이상국전집』 권6, 『한국문집총간』 권1, 349쪽, “落日隱半規, 到山聞暮梵.[時泊舟入一寺]. 入夜又放船, 月色清可攬”

인용한 시는 ‘고운 기생[明媚·배꼽이 둥근 게[團臍蟹·목 짧은 방어[縮頸鰻]를 통하여 흥겹고 풍성한 연회를 그리고 있다. 또한 이규보는 ‘값을 매길 수 없다[不論錢]와 ‘그림과 같다[眞似畫]를 통하여 別세계의 모습을 언급한다. 尾聯에서는 ‘모래톱 갈매기[沙鷗]에게 ‘배를 피하지 말라[莫避船]’고 하면서, 機心 조차 느낄 수 없는 놀이의 광경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患亂의 어려움이나 不遇한 이규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유생들의 환대는 그동안의 정신적 어려움을 잊게 할 정도로 이규보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당시 과거에 합격한 문사를 예우하는 지방 유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을의 수령이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면서 지방에 있는 인물이 文士를 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의 행태라고 할 수 있지만, 향교 유생의 초청은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규보라는 인물이 당대에 주목을 받았던 문사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생들과의 동류의식까지도 인식하게 한다.

『동문선』에는 조정에서 일하는 이규보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시를 수록하였다. 다음의 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평장사 琴儀가 外孫 얻은 것을 축하하는 시에 차운하다>

咸郎才調世皆知, 咸郎의 文才는 세상이 모두 알고 있으니,  
 奠僞高門早叶龜, 좋은 가문과의 혼례는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네.  
 英物夜生光照室, 길출한 인물이 한밤중 태어나 빛이 産室을 비추고,  
 賀賓朝集衽成帷, 축하하는 손님이 아침부터 모여 옷깃이 장막을 이루네.  
 不因外姓求佳婿, 外姓에서 좋은 사위를 구하지 못했다면,  
 豈向諸孫得異兒, 어찌 諸孫으로 특별한 아이를 얻었겠는가.  
 要待識聲溫大尉, 溫大尉는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지만,  
 何煩摩頂誌禪師, 구태여 誌禪師가 정수리 쓰다듬을 필요가 있겠는가.  
 羽毛會作冲天鶴, 깃털은 반드시 하늘 높이 오르는 학이 될 것이고,  
 氣膽應吞拔樹猱, 담대한 기운은 아마도 나무 뽑는 꿈을 삼키리라.

欲驗吾言如合契, 내 말이 꼭 맞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他年徵此一篇詩. 이후에 이 한 편의 시를 증거로 삼으리라.<sup>17)</sup>

琴儀는 여러 차례 知眞擧로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平章事라는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 위 시는 琴儀가 外孫을 얻은 것에 대한 賀禮의 목적이 있는 排律詩이며, 총 2수 중에서 첫 번째 수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조정의 문인들이 儀禮的·遊戯的 상황에서 시를 주고받는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琴儀에 대한 頌揚이 주된 내용이며,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강조하였다.<sup>18)</sup>

인용한 시에서는 高門과 佳婿인 威郎으로 아이의 비범함을 강조하였다. 아이의 뛰어난 관상은 溫嶠가 桓溫을 보고 영특한 인물이라고 한 고사를 인용하였으며,<sup>19)</sup> 상서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寶誌가 徐陵의 이마를 만진 내용을 통하여 드러내었다.<sup>20)</sup> 앞으로 威郎의 아들이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언급하고, 마지막에는 ‘이후에 이 한 편의 시를 증거로 삼으리라[他年徵此一篇詩]’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외에도 『동문선』 <寓居天龍寺>(『동문선』 권11)와 <扶寧馬上記所見>(『동문선』 권14)을 수록하고 있는데, 두 시는 전주에서 지방관리로 일하는 일상을 담고 있다. <寓居天龍寺>에서의 ‘삼복더위에 일찍 쉬고 백성의 송사도 적으니 [三伏早休民訟少]’와 <扶寧馬上記所見>에서의 ‘바쁘게 하는 일은 모두 왕의 명을 받는 것이고, 화목하고 즐거움은 또한 임금의 은혜이네.[役役皆王事, 陶陶

17) <次賀琴平章得外孫>, 『동문선』 권18 ; <次韻琴相國喜得外孫有作, 寄崔平章洪胤> 2수 중 1수, 『동국이상국전집』 권14, 『한국문집총간』 권1, 440쪽.

18) <次韻琴相國喜得外孫有作, 寄崔平章洪胤> 2수 중 2수, 『동국이상국전집』 권14, 『한국문집총간』 권1, 440쪽, “台鉉登庸我早知, 看公足底踏文龜[公昔到子家, 與林尚書跣足着基, 予見足底踏龜] 水銜舊綵江綃罽[曾爲翰林學士] 玉色曾親紫錦帷[公曾爲承旨, 漢唐帝施紫錦之帷] 膏液盡潤門下客, 薰香猶被乳前兒. 三英共美邦之彥, 萬戶行封帝者師. 名遍江淮傾草木, 威行蠻貊懾熊羆. 公餘著詠多規諷, 樂府流傳卽雅詩.”

19) 『晉書·桓溫傳』68, 『欽定四庫全書』, “桓溫字元子, …(中略)… 生末期而太原溫嶠見之, 曰: ‘此兒有奇骨, 可試使啼.’ 及聞聲, 曰, ‘眞英物也.’”

20) 『南史·徐陵傳』62, 『欽定四庫全書』, “徐陵年數歲, 家人攜以候沙門釋寶誌, 寶誌摩其頂曰, 天上石麒麟也.”

亦聖恩.』는 지방관으로서 느끼는 여유와 자부심을 알 수 있다.

『동문선』에는 致仕 이후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시도 수록하고 있다. 『동문선』권16의 <次韻>은 『동국이상국후집』권8의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李侍郎은 李需를 말한다. 崔珙가 임금을 모시고 女童의 妓樂과 絲竹을 관한 내용으로 頌揚하는 排律詩를 지었는데, 여기에 이규보가 차운한 것이다.<sup>21)</sup> 여기에서는 최우에게, ‘이것은 공께서 삼한을 鎮定함으로 써 앞으로 태평함에 이르는 가상한 일입니다.[此公之所以鎮定三韓, 將致大平之嘉事也.]’라고 하면서, 치사 이후에도 元老로서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솔직한 심정을 보여 주었다.

## 2) 作詩 素材와 表現에 대한 관심

『동인지문오칠』에서 이규보 한시에 대한 選詩는 『보한집』의 비평을 수용한 흔적이 보인다.<sup>22)</sup> <延福亭>·<夏日>·<春曉晝眠尹學錄韻>·<辛酉五月端居無事和子美成都草堂詩韻>·<扶寧浦口>·<杜門>·<北山雜題>·<列子御風>·<子猷訪戴>의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는 이규보가 作詩하는 과정에서의 逸氣와 新意를 具現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용한 작품들이다.<sup>23)</sup> 『동문선』에서는 『보한집』에서 인용한 <寄吳德全>·<朴丞家盆竹>·<重遊北山>·<宿峯城縣>·<右軍換鵝>의 시를 추가로 수록하고 있다.<sup>24)</sup> 한편으로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素材 측면에서 寢屏·畫簇의 그림을 바탕으로 지은 한시와 盆栽 및 매

21)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의 并序에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僕竊聞, 令公閣下以機務之隙, 大集賓客, 爲度夜之樂, 其妓樂絲竹, 則皆所常有, 別有女童輩皆年可七八, 聰利警悟, 凡口伶才, 無所不曉, 公於此爲樂, 以愛君之心, 不忍獨賞, 進供御覽, 上亦樂焉, 至於連夜開宴, 於是詩人文閣李需進詩於邸下, 公嘆賞不已, 遂進於上, 上亦嘉獎, 大加褒賞, 此公之所以鎮定三韓, 將致大平之嘉事也. 予雖耆老, 聞之不勝嘉歎, 謹依韻和成一首奉呈云.”(『동국이상국후집』권8, 『한국문집총간』권2, 217쪽.)

22) 이희영(『『東人之文五七』 소제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82, 우리어문학회, 2025, 222~230쪽.)의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23) 이희영(『『補閑集』을 통해서 본 李奎報 漢詩의 新意와 逸氣의 具現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74, 동양고전학회, 2019.)의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24) <寄吳德全>은 오세재와 忘年之交의 일화를 다룬 것으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화와 같은 사물을 읊은 이규보 한시를 『동문선』에 수록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新意와도 연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물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이규보의 시는 마음을 놀라게 한다.[相國詩警於心]’(『보한집』중권·16칙)를 바탕으로 選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北山에서 노닐다>

俯仰頻驚歲屢更, 깊이 생각해보니 세월만 가는 것에 자주 놀라고,  
十年猶是一書生. 십 년 동안 여전히 한 명의 書生일 뿐이네.  
偶來古寺尋遺迹, 우연히 오래된 절에 와서 남겨진 자취를 찾고,  
却對高僧話舊情. 다시 高僧을 마주하며 옛 우정을 이야기하네.  
半壁夕陽飛鳥影, 해 질 무렵 산허리에 날아가는 새 그림자 비치고,  
滿山秋月冷猿聲. 가을 달이 뜬 밤 산에 가득히 차가운 원숭이 울음 들리네.  
幽懷一鬱殊難寫, 한바탕 우울한 마음 유달리 덜기 어려워,  
時下中庭獨步行. 가끔 뜰에 내려와 혼자서 걸어 보네.<sup>25)</sup>

‘重遊’의 행위는 지난날 행적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남겨진 자취를 찾다[尋遺迹]’와 ‘옛 우정을 이야기하다[話舊情]’는 인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北山の 寺院을 찾아서 回想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山寺에 왔음을 이야기한다. ‘마음의 깊은 회포[幽懷]’는 경련에서 보이는 爽豁한 경물을 통해서도 잊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해 질 무렵 지나가는 새[夕陽飛鳥]’를 통하여 저무는 시간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차가운 원숭이 울음[冷猿聲]’을 통하여 공허한 가운데 느끼는 우울한 정서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中庭을 홀로 걷는 것이다.

『보한집』에서는 摘句批評의 측면에서 頸聯의 표현에 주목한다. 경련의 出句

25) <重遊北山>, 『동문선』권14; <重遊北山>二首 中 一首, 『동국이상국전집』권1, 『한국문집총간』권1, 300쪽.

는 산허리[半壁]에 비치는 ‘새 그림자[鳥影]’라는 시각과 對句에서는 ‘가을 달이 뜬 밤[秋月]’에 ‘원숭이 울음[猿聲]’이라는 시각·청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보한집』하권·1칙에서는 ‘爽豁’이라는 평어를 제시한다. 이규보가 해 질 무렵 탁 트인 공간에서 사물을 포착하는 능력에 평어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은 <宿峯城縣>의 頷聯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섬돌의 대나무 길은 그늘에 어린 손 아직 자라지 못하고, 딸의 매화 흙축한 비에 열매 처음으로 살찌네.[階竹困陰孫未長, 庭梅飽雨子初肥.]’라고 하여, 이른 봄 해 질 무렵 驛院에서 竹筍과 뜰에 있는 매화에 시선을 두고 있다. 『보한집』에서는 이규보의 逸氣에 주목하고, 기운이 살아 있는 시구이기에 사람들의 입에 膾炙되었다고 하였다.<sup>26)</sup> 여기에서는 ‘이른 봄’과 ‘해 질 무렵’이라는 시간(계절)과 行旅客이 있는 驛院에서 죽순과 매화를 누구나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운이 살아 있는 詩句로 만들어 내는 능력에 주목한 것이다.

<왕휘지가 글씨로 거위를 바꾸다>

費盡溪藤始掃殘, 등나무 종이 다 사용하여 비로소 글씨를 남겨,  
滿籠剛換白鵝還. 籠이 흰 거위와 바꾸어 새장에 가득 채워 돌아왔네.  
不如曠姥烹相待, 어리석은 늙은 할매가 거위 삶아서 왕휘지를 기다린 것은  
破却山陰一段杼. 도리어 산음 도사의 한날 인색함을 깨트리는 것보다 못하네.<sup>27)</sup>

이 시는 ‘寢屏’에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作詩한 것이다. 『동국이상국전집』권11에는 6수의 시가 있는데, 『보한집』하권·8칙에는 <列子御風>·<陶潛漉酒>·<子猷訪戴>·<潘閬向三峯>를 인용하였으며, 『동인지문오칠』에서는 <列子御風>·<子猷訪戴>를 수록하였다. 『동문선』에서는 추가로 인용한 시를 수록하였다.

轉句의 내용은 거위를 좋아한 왕휘지가 잘 우는 거위를 길렀던 노파를 찾아

26) 『보한집』하권·5칙, “順公少年走筆, 皆氣生之句, 膾炙衆口.”

27) <右軍換鵝>, 『동문선』권20; <題任君景謙寢屏六詠, 與尹同年等數子同賦·右軍換鵝>, 『동국이상국전집』권11, 『한국문집총간』권1, 409쪽.

가 얻으려고 하였지만, 노파가 왕휘지를 대접하기 위하여 거위를 삶았다는 것이다. 이후에 왕휘지는 山陰의 道士에게 『道德經』을 筆寫해 주고 거위를 얻었다고 한다.<sup>28)</sup> 起句·承句는 道士에게 거위를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대체로 이 고사는 왕휘지의 풍류를 드러내는 데 주목하고 있지만, 이규보는 좋지 않은 거위를 거래했던 도사와 거위를 삶았던 노파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도사의 행위도 인식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노파의 행동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 시는 『보한집』하권·8칙에서, “문순공은 新意의 묘한 경지에 들어섰고, 이학사는 주로 말이 맑고 아름답다.[文順公新意入妙 李學士主語清婉]”라고 한 것처럼 新意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新意는 새로운 詩句를 만든 것이 아니라 故事를 바탕으로 그린 寢屏의 그림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四時詞>(『동문선』권20)는 『동국이상국전집』권3에 <代人書寢屏四時詞>라는 詩題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春夏秋冬에 해당하는 寢屏의 그림을 바탕으로 作詩한 것이다. ‘미인이 자고 일어나 마음이 울적한지[美人睡起心煩悶](<春>의 轉句)·‘碧筒酒 전하니 오히려 덥다고 하여[碧筒傳酒猶嫌熱](<夏>의 轉句)·‘꿈속의 영혼 다한 곳에 겹겹이 산인데[夢魂盡處山重疊](<秋>의 轉句)·‘비단 자리 따뜻함에도 오히려 겹겹이 깔았으니[綺筵重暖猶教摺](<冬>의 轉句)의 詩句는 그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보여준다. 또한 <蓼花白鷺>(『동문선』권4)는 簇子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규보의 해석이 보인다.<sup>29)</sup> 尾聯의 ‘마음은 여전히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채로 서 있다고들 하네.[心猶在灘魚, 人澹忘機立.]’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생각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이규보는 機心이 아닌 백로가 자연의 사물로서 지니는 본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시선이다.<sup>30)</sup> 백로는 사람들이 돌아가길 기다렸다가

28) 이에 대한 고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晉書·王徽之傳』50, 『欽定四庫全書』, “會稽有孤居姥養一鵝, 善鳴, 求市未能得, 遂攜新友命駕就觀, 姥聞義之將至, 烹以待之, 義之歎惜彌日. 又山陰有一道士, 養好鵝, 義之往觀焉, 意甚悅, 固求市之, 道士云, ‘爲寫道德經, 當舉群相贈耳.’ 義之欣然寫畢, 籠鵝而歸, 甚以爲樂.”

29) <月師方丈畫簇二詠·蓼花白鷺>, 『동국이상국전집』권2, 『한국문집총간』권1, 311쪽.

여울에 있는 물고기와 새우를 먹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문선』에는 이규보가 ‘盆竹’과 ‘梅花’에 대하여 읊은 시를 選詩하였다.

<박승가의 盆竹을 시로 읊다>

欲試君賢豈一端, 그대의 현명함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어찌 한가지 뿐이겠는가,  
悍根又耐石盆寒. 강한 뿌리는 또한 石盆의 냉기를 견뎌냈네.  
箇中尙有湘江意, 이 안에는 여전히 湘江의 뜻 있으니,  
直作攙天玉槩看.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옥으로 만든 창을 보는 듯하네.<sup>31)</sup>

盆竹은 집안에서 盆栽 형태로 기르는 대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盆竹의 대나무가 차가운 石盆을 이겨내는 강인함에 주목하고 있다. 起句에서는 ‘그대의 현명함[君賢]’을 ‘시험해 본다[欲試]’고 하여 語氣를 높이고 있다. 이규보가 박승가의 대나무를 소재로 삼은 것은 ‘상강의 뜻[湘江意]’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盆竹을 무성하게 잘 길러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結句의 ‘하늘을 찌르[攙天]’는 ‘옥으로 만든 창[玉槩看]’은 이를 부연하는 것이다.

『보한집』중권·16칙에서는 이인로가 읊은 盆竹을 비교하면서, “이학사(이인로)의 시는 눈을 놀라게 하고, 상국(이규보)의 시는 마음을 놀라게 한다.[學士詩警於眼 相國詩警於心]”라고 하였다.<sup>32)</sup> 또한 『보한집』중권·16칙에서, “물화분 속의 흰 모래에는 마땅히 菖蒲를 길러야 하는데, 대나무를 길렀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 학자가 다만 詩詞의 아름다운 것만을 취하려 했을 뿐이어서, 그 뜻을 잊은 것이다.[然水盆白沙, 宜養菖蒲, 非養竹. 學者但取韻語清婉, 而忘其意.]”라고 하였다. 『보한집』은 作詩할 때 詩語와 事物의 실체가 맞아야 한다

30) 이은하(『李奎報 題畫詩를 통한 高麗 花鳥花의 一考察』, 『민족문화연구』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505쪽.)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31) <朴承家盆竹>, 『동문선』 권20 ; <次韻 和崔相國詵和黃韻中題朴內園家盆中六詠·竹>, 『동국이상국전집』 권7, 『한국문집총간』 권1, 364쪽.

32) 『보한집』중권·16칙에서 인용한 이인로의 시는 다음과 같다. 李眉叟盆竹云, “水澗盆中玉鏡寒, 白沙培養碧琅玕. 渭濱湘岸俱千里, 爭及軒窓取次看.”

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규보는 作詩의 소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인로와는 다르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시를 구상하는 측면에서 의미[뜻]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이규보의 作詩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梅花>는 힘겨운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開花·洛花·雪香·雪香·驛使梅花’처럼 매화와 관련한 내용을 통하여 운치와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매화>

庾嶺侵寒拆凍唇, 대유령의 추위가 닥쳐도 차가운 입술을 터트리고,  
不將紅粉損天真. 붉은 연분 본래의 모습 변하지 않네.  
莫教驚落羌兒笛, 羌兒의 피리 소리에 놀라 떨어지지 말고,  
好待來隨驛使塵. 驛使의 먼지를 따라 잘 오길 바라네.  
帶雪更粧千點雪, 눈 내리면 다시 천 송이의 눈으로 꾸미고,  
先春偷作一番春. 봄에 앞서 가장 먼저 봄을 훔치네.  
玉肌尚有清香在, 옥 같은 살결 여전히 맑은 향내 있으니,  
竊藥姮娥月裏身. 仙藥을 훔쳐 달에 몸을 숨긴 姮娥인 듯하네.<sup>33)</sup>

梅花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사물이다. 이규보는 직접 매화를 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頭聯에서는 ‘차가운 입술을 터트린다[拆凍唇]’와 ‘본래의 모습 변하지 않는다[損天真]’라고 하여, 매화가 嚴冬에도 시기를 어기지 않고 꽃을 피우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말한다. 頤聯에서의 ‘羌兒의 피리 소리[羌兒笛]’는 <落梅>라는 악부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매화꽃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 먼지[驛使塵]’는 남북조 시대 宋의 陸凱가 장안에 있는 范曄에게 매화 가지 하나를 꺾어 시 한 수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을 말한다.<sup>34)</sup> 즉 매화가 때를 놓치지 않고 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33) <梅花>, 『동문선』 권14 ; <梅花>, 『동국이상국전집』 권1, 『한국문집총간』 권1, 301쪽.

34) 『太平禦覽』 권409, 『欽定四庫全書』, “荊州記曰, “荊州記陸凱與範曄相善, 自江南寄梅花一枝,

번 강조한 것이다. 頸聯은 전통적으로 가지에 開花한 매화를 흰 눈으로 비유하는 香雪과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사실을 시로 읊었다. 結聯에서는 雪香으로 비유할 수 있는 매화의 향기와 백옥과 같은 모습을 姮娥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頸聯 對句인 ‘봄에 앞서 가장 먼저 봄을 훔치네[先春偷作一番春]’는 花新風에서 가장 먼저 부는 바람을 梅花風이라고 한 것처럼,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詩意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시 전체적으로 매화를 직접적으로 형용하거나 비유하는 말을 최소화하여 作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求官 목적의 排律詩 수록

배울시는 궁중에서 應製와 과거 시험에서의 科體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作詩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배울은 唐나라 문인들에 의하여 개인의 求官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求官 活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후대의 문인들이 전범으로 받아들인다.<sup>35)</sup> 求官 목적의 배울시는 상대에 대한 頌揚과 개인의 처지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sup>36)</sup>

한편으로 『동문선』권11에는 오언배울시 44제 44수를 編次하고 있는데, 이규보의 오언배울은 8제 8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관 목적의 배울시는 6제 6수이다. 『동문선』 오언배울은 儀禮와 抒情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儀禮 중에서 求官을 목적으로 選詩한 것은 이규보 오언배울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는 <上趙相詩>(56운)·<上右散騎>(10운)·<上直門下>(10운)·<上

詣長安與曄，並贈花詩曰，「折梅逢驛使，寄與隴頭人。江南無所有，聊贈一枝春。」”

35)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松原郎, 「初唐期における五言排律の形成をめぐって」, 『中國詩文論叢』1, 中國詩文研究會, 1982.; 丁放·袁行霽, 「宮廷中的詩人與盛唐詩壇：盛唐詩人身份經歷與創作關係研究之一」,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9(1).; 강민호, 『두보배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鄭佳琳, 「五言排律在詩學理論上的闡述過程及命名原理探析」, 『文藝理論研究』42(02), 2022.

36) 이희영, 「『東文選』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88, 동양고전학회, 2022, 11~17쪽.

左諫議>(10운)·<上右諫議>(10운)·<上中書舍人>(10운)이 여기에 해당한다. <上趙相詩>(56운)는 『동국이상국전집』 권7에 <上趙令公永仁>이라는 詩題로 되어 있으며, ‘并引’과 함께 求官의 대상을 명시하였다. 이 배울시는 1197년 12월에 作詩한 것인데, ‘并引’에는 作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족한 재가 어그러지고 둔한 자질로, 일찍 과거 시험 합격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8년이라는 시간이 문득 지나버렸으나 한 번도 임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삼가 恩門인 相國閣下께서 강한 권한이 있는 이부를 맡아서, 士人을 精鑑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스스로 물러서기 어려워, 문득 포부를 펼치고자 합니다. 明鏡臺 앞에서 비록 부끄럽게도 곱고 추함을 쉽게 구별하지만, 洪爐의 손 아래에서는 둔하고 날카로운 자질을 가리지 않고 함께 포용한다고 하니, 부족한 저를 거두어 시험 삼아 작은 고을의 소임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sup>37)</sup>

이규보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정과는 무관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銓衡할 수 있는 吏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영인에게 求官하고 있다. 그는 洪爐와 같은 포용력으로 자신과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달라는 간절함을 전한다.<sup>38)</sup>

#### <조상국에게 올린다>

仲卿扶聖漢,	仲卿은 한나라를 부축하였고,
趙憬相皇唐.	趙憬은 당나라를 도왔네.
根大瓊枝盛,	뿌리가 크면 옥 같은 줄기가 성대하고,
源深玉派長.	근원이 깊으면 옥 같은 물줄기 길다네.

37) <上趙令公永仁并引>, 『동국이상국전집』 권7, 『한국문집총간』 권1, 366쪽, “某謬將爽鈍之資, 早占桂仙之籍, 八霜倏變, 一命不濡. 今伏遇恩門相國閣下掌銓部之劇權, 作士倫之精鑑, 實難自縮, 輒欲求伸. 明鏡臺前, 雖愧妍媸之易別, 洪爐手下, 不論利鈍以兼錄, 冀收樸樾之材, 用試絃歌之任云云.”

38) 이규보 연보에는 1197년 12월 趙永仁·任濡·崔詵·崔讜 등이 이규보를 추천하였는데, 掌奉承宣 한 명이 감정이 있어서 筭子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올리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履龜生挺質, 畫鹿早占祥. 筆力千鈞重, 心河萬頃汪. …(中略)…	말바닥 거북 무늬는 타고난 좋은 자질이고, 수레에 그린 사슴은 일찍부터 상서로운 조짐이었네. 붓의 힘은 만근처럼 무겁고, 황하와 같은 마음은 만 이랑의 바다처럼 넓네. …(중략)…
品人同許郭, 愛客似原嘗. 利器金權鑄, 長材玉枰量. …(中略)…	인품은 허소·곽태와 같고, 문객의 대우는 평원군과 맹상군처럼 하네. 예리한 기구는 금 망치로 만들고, 좋은 재목은 옥 저울로 재보네. …(중략)…
無賴孤驅在, 投閑十載強. 妙齡初卅角, 遊學遠贏糧. …(中略)…	기델 곳 없는 외로운 몸뚱이 있을 뿐이고, 일없이 지낸 지 십 년이 넘었네. 어린 나이 머리칼을 묶었을 때부터, 멀리까지 양식을 싸서 유학하였네. …(중략)…
科第連年捷, 聲華一日彰. 不曾吞墨水, 聊得鍍金湯. 便欲層霄擊, 何思半路僵. …(中略)…	과거 시험은 해를 이어서 합격하였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빛났네. 과거를 보며 먹물을 마신 적이 없었으나, 오로지 헛된 명성만 얻었을 뿐이네. 문득 높은 하늘에 닿고자 하였으며, 어찌 중간에 쓰러지기를 생각하겠는가. …(중략)…
早聞明鏡照, 猶及覆盆藏. 果記冰鄉子, 曾稱粉省堂. 喜深跳欲舞, 涕出拭還滂. …(中略)…	일찍이 밝은 거울이 비추는 것은, 오히려 얽은 동이 속까지 이른다고 들었네. 과연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기억하고, 일찍이 粉省堂에서 칭찬도 해주었네. 매우 기뻐 뛰면서 춤추고 싶었으며, 나오는 눈물 닦아도 계속 흘렀네. …(중략)…
亮難堪劇郡, 正合委偏鄉.	진실로 큰 고을 감당하기는 어려우나, 바로 작은 고을 맡은 것이 알맞네.

最望龍東海,	자라가 만치고 있는 동해를 가장 바라고,
還思鴈北方.	기러기 가는 북쪽 지방의 먼 곳도 생각하네.
窮奔何擇木,	곤궁한 원숭이가 숲으로 가듯 무슨 나무를 가리겠으며,
饑口不須魴.	굶주린 입은 魴魚만을 바라겠는가.
躍躍哀鳴急,	간절한 모습 슬피 울기에 급급하고,
懸懸仰叩忙.	불안한 모습 행동 하나하나에 조급하네.

仲卿은 東漢의 趙典이며, 趙憬은 唐에서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이규보는 이러한 연원을 지닌 조영인이 ‘履龜·畫鹿’의 시어로 좋은 자질과 상서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筆力·心河’의 시어로 文才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雅量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인품과 문객을 대우하는 측면을 언급하면서, ‘예리한 기구[利器]를 만들 수 있고 ‘長材[좋은 재목]’를 알아보는 재주가 뛰어난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이규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이어지는 不遇한 생활에 대하여 길게 시로 읊고 있다. 이 부분은 自敍에 해당한다. 自敍에서는 겸손한 어조를 유지한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은 헛된 명성만 얻었을 뿐이라고 自嘲하였으나, 다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1197년 12월 趙永仁·任濡·崔誥·崔讜이 조정[粉省堂]에서 이규보를 추천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작은 고을이라도 맡겨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규보는 相國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영인에게 56운의 장편배율시를 바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간절함을 표출하는 동시에 장편 배율을 통하여 제한하는 여건에서 作詩능력을 보여주어 조정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上右散騎>·<上直門下>·<上左諫議>·<上右諫議>·<上中書舍人>의 배율은 『동국이상국전집』 권8에 <呈內省諸郎>이라는 詩題 아래에 함께 作詩한 것이다. 여기에도 ‘并敍’는 作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문선』에서는 閔湜·金迪·李桂長·李世長·高瑩忠(高瑩中)에게 보낸 배율시를 選詩하였다.

…(상략)… 근래, 조심스럽게 內省의 諸郎·學士·閣下께서 視草하는 사이에, 인물을 언급하면서, ‘제가 淺薄하여 취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잡는 은혜를 베풀어 국가에 추천하시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른바, 옛사람의 지극히 공정한 道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지금 행하여 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략)… 다시 마음으로 諸郎·學士께 바라는 것은 앞에서 했던 말을 장난이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니, 좋은 벼슬을 내려 주시고, 끝내는 그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황송함을 이루다 이길 수 없습니다.<sup>39)</sup>

인용문에서는 內省의 諸郎·學士·閣下가 자신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전까지의 편향한 시선으로 이규보를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규보는 조정에서 했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序文에 드러내어, 자신이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산기에게 올리다>

世家傳閥閱,	가문은 대대로 선조의 공적을 전하고,
系出費侯賢.	먼 조상은 현명한 費侯와 같은 분이 나왔네.
蘭玉雙枝秀,	蘭玉과 같이 훌륭한 두 형제 빼어나고,
虹霓一氣連.	虹霓와 같은 재능 한 부모에게서 나왔네.
雲梯同坦步,	구름사다리 함께 탄탄하게 걸었고
仙省迭相遷.	中書省 번갈아 가며 서로 옮겼네.
樹對鷄新舊,	닭이 시간을 두고 나무를 마주하는 듯하고,
天分鴈後先.	기러기가 앞뒤로 하늘을 가르는 듯하네.
…(中略)…	…(중략)…
囊錐容早脫,	주머니의 송곳이 어찌 일찍 나오겠는가,

39) <呈內省諸郎并絃 戊午年>, 『동국이상국전집』 권8, 『한국문집총간』 권1, 373쪽, “…(上略)… 近者, 伏聞內省諸郎學士閣下, 視草之暇, 言及人物, 不以爲淺薄無取, 雌黃潤澤, 將欲薦進於國家. 僕竊自以爲古人所謂至公之道, 廢之已久, 不意復行於今日矣. …(中略)…; 復竊望諸郎學士勿謂前言戲耳, 期以好爵廢之, 以終其惠而已. 無任惶悚之至.”

紈扇豈中捐.      비단부채가 어찌 상자 속에 버려지겠는가.  
 况接獲葶幸,      게다가 가까운 인척이어서 다행이니,  
 平生恃淺緣.      평생 얽은 인연을 믿겠네.<sup>40)</sup>

이 배율시는 閔湜에게 올리는 것으로 10운 20구의 배율이다. 이 시를 포함하여 諸郎學士에게 보내는 배율은 10운을 선택하고 있으며, 재상이었던 조영인에게는 56운의 장편 배율을 지어 올렸다. 여기에서는 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배율시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는 頌揚과 自敍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은 가문에 대한 언급과 費侯(閔子騫)의 후예라는 점을 강조하고, 閔湜·閔公珪 두 형제가 나란히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규보는 가문과 형제에 대한 頌揚을 한 뒤, 自敍에서는 ‘주머니 송곳[囊錐]·비단 부채[紈扇]’로 자신을 비유하여 인재가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이외의 排律詩 自敍 부분에서는, ‘목청을 돋우어 한바탕 소리 내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弓吭思一振, 何幸借扶搖.](<上直門下>)·‘이미 知音이 있어 다행이니, 어찌 번거롭게 미리 벼슬자리를 점치겠는가.[已是知音幸, 何煩筮仕爻.](<上左諫議>). ‘또한 평생의 다행이니, 어찌 실의한 채로 부르짖게 하겠는가.[亦是平生幸, 寧教失意呼.](<上右諫議>).’형산의 아래에서 卞和가 박옥을 안고, 평생 울고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라네.[願記荆山下, 窮年泣玉和.](<上中書舍人>)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狂人을 자처했던 지난 시절 자신에 대한 편향한 시선에서 벗어나 관리로 추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언배율시는 배율에서는 正格에 해당하며, 중국에서는 궁정의 應製와 과거 시험에서 활용하였다. 『동문선』에서는 應製·奉贈·次韻·寄贈·送別·謝禮·頌·賀禮·抒情에 해당하는 오언배율을 選詩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奉贈에서 求官을

40) <上右散騎>, 『동문선』 권11; <上右散騎常侍閔湜>, 『동국이상국전집』 권8, 『한국문집총간』 권1, 376쪽.

목적으로 하는 이규보의 오언배율시를 選詩하였다. 이것은 궁정문화 안에서 제한되었던 오언배율이 다양한 성격으로 확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을 『동문선』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의 오언배율은 무인 정권 시기 추천제에 의한 관리 선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언배율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選詩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본고는 『東文選』所載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규보 한시에 대한 관심은 崔滋의 『보한집』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崔澗은 『동인지문오칠』에서 38제 50수를 選詩하였다. 崔澗은 이규보의 삶을 국면별로 정리할 수 있는 시와 『보한집』의 비평을 수용하여 選詩하였다. 조운흠은 『동인지문오칠』의 시를 選詩하면서 최해의 批點을 수용하여 精選하였다.

『동문선』에서의 이규보 한시에 대한 選詩는 『동인지문오칠』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 외에 22제 26수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選詩 樣相은 우선, 다양한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를 選詩하였다. 여기에서는 忘年之交인 오세재와 지방 유생 및 조정에서 문인들 사이의 교류, 致仕 이후 元老로서 생활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으로 作詩 素材와 表現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素材 측면에서 寢屏·畫簇의 그림을 바탕으로 지은 한시와 盆栽 및 매화와 같은 사물을 읊은 시가 보인다. 표현에서는 <朴丞家盆竹>·<重遊北山>·<宿峯城縣>·<右軍換鵝> 등, 『보한집』 평어를 통하여 逸氣와 新意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물에 대한 포착 능력과 구성에 있어서 ‘상국(이규보)의 시는 마음을 놀라게 한다.[相國詩警於心]’(『보한집』중권·16칙)를 바탕으로 選詩했다

고 할 수 있다.

끝으로 求官을 목적으로 하는 오언배율시를 選詩하였다. 배율시는 궁중에서 應製와 과거 시험에서의 科體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作詩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동문선』에서는 구관 목적의 오언배율을 選詩하였는데, 이것은 무인 정권 시기 추천제에 의한 관리 선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언배율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選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규보 漢詩에 대한 選詩는 조선 시대 각종 詩選集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규보 한시에 대한 지속적 인식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詩選集의 選詩와 관련한 樣相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자료>

- 『太平禦覽』·『晉書』·『南史』, 『欽定四庫全書』  
徐居正 外, 『東文選』.  
——, 『國譯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69.  
신승운, 『東人之文五七』影印, 『서지학보』16, 한국서지학회, 1995, 155~256쪽.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1권~41권, 『韓國文集叢刊』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 『東國李相國後集』1권~12권, 『韓國文集叢刊』2, 민족문화추진회, 1988.  
——, 『東國李相國集』상·하, 조선고서간행회, 1913.  
——, 『국역 동국이상국집』1~7,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78.  
이희영 편저, 『이규보 시선』, 학자원, 2022.  
이희영 역주, 『이규보 시선』2, 학자원, 2024.  
鄭澗趾 外, 『高麗史』  
——, 『신편 고려사』, 고전연구실 옮김, 신서원, 2001.  
趙云佐, 精選, 『三韓詩龜鑑』, 김갑기 역주, 이화문화출판사, 2007.  
崔 滋, 『補閑集』. 고서간행회, 1911.

### <논저>

- 강민호, 『두보배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김건곤, 「『三韓詩龜鑑』 연구」, 『한국학』9(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151~176쪽.  
——, 「高麗時代의 詩文選集」, 『한국학』20(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3~34쪽.  
김대중, 「『삼한시귀감』 所載 崔滋의 평점비평 연구」, 『한국문화』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3~67쪽.  
(UCI : G704-001253.2013.61.006)  
박한남, 「최혜의 『동인지문오칠』 편찬과 사료적 가치」, 『史學研究』67, 한국사학회, 2002, 57~101쪽.  
松原郎, 「初唐期における五言排律の形成をめぐる」, 『中國詩文論叢』1, 中國詩文研究會, 1982, 50~66쪽.  
여운필, 「『東文選』 시문의 출처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117~144쪽.

(UCI : I410-ECN-0102-2012-510-000127813)

이은하, 「李奎報 題畫詩를 통한 高麗 花鳥花의 一考察」, 『민족문화연구』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477~516쪽.

(UCI : G704-000804.2010..53.012)

이희영, 「『補閑集』을 통해서 본 李奎報 漢詩의 新意와 逸氣의 具現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74, 동양고전학회, 2019, 183~210쪽.

\_\_\_\_\_, 「『東文選』 소재 五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88, 동양고전학회, 2022, 9~46쪽.

\_\_\_\_\_, 「이규보의 도연명 인식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51,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73면, 65~94쪽.

(UCI : I410-ECN-0102-2023-000-001102467)

\_\_\_\_\_, 「『東文選』 소재 七言排律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54,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187~213쪽.

(UCI : I410-151-25-02-091677510)

\_\_\_\_\_, 「『東人之文五七』 소재 李奎報 漢詩의 選詩 樣相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82, 우리어문학회, 2025, 207~242쪽.

鄭佳琳, 「五言排律在詩學理論上的闡述過程及命名原理探析」, 『文藝理論研究』42(02), 2022, 184~193쪽.

丁放·袁行霈, 「宮廷中的詩人與盛唐詩壇：盛唐詩人身份經歷與創作關係研究之一」,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9(1), 29~41쪽.

조동일 외 4인 공저, 『고려명현 최해연구』, 국학자료원, 2002.

한영규, 「최해의 시문학과 선시의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웹문서>

『CD-ROM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고려시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goryeo>(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韓國文集叢刊』, <http://db.itkc.or.kr>(한국고전번역원)

| Abstract |

## A Study on the Patterns of Selecting Lee Gyu-Bo's Chinese Poems for *Dongmunseon*

Lee, Hee-young  
Sangmyung Univ. Prof.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selecting Lee Gyu-bo's Chinese poems in *Dongmunseon*. When selecting Lee's Chinese poems to be included in *Dongmunseon*, the compilers accepted the case of Donginjimunochil and added 22 Jes and 26 Sus.

As for the patterns of selecting his poems, they first selected the ones that showed the diverse aspects of his daily life. These poems depict how he became friends with Oh Se-jae despite an age gap, enjoyed friendship with local Confucian scholars and the literary people at the royal court, and lived as an elder after retiring from a government post due to old age.

Next, the compilers had an interest in the materials and expressions in his poems. In terms of materials, they selected Lee's poems based on paintings on small folding screens and picture scrolls and the ones that described objects such as potted plants and apricot flowers. In terms of expressions, they selected his poems that exhibited a wonderful spirit and a new mind.

Finally, the compilers selected Lee's Baeyul poems whose goal was to seek a government position. For *Dongmunseon*, they

selected his poems in the five-word Baeyul form to seek a government position. This shows the practice of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recommendation system during the military regime and serves as an indicator to reveal the nature of the five-word Baeyul.

**Key words:** Lee Gyu-bo(李奎報), Dongmunseon(東文選), Dongjinmunochil(東人之文五七), anthology (詩選集), Baeyul poem(排律), selecting poems(選詩)